

코로나 키우는 거짓말... 광주 공동체 안전 '흔들'

광화문 집회 참석 후 확진 일가족 5명 시험장·교회 등 확보
학동 모 병원에서도 환자·보호자·요양보호사 등 5명 감염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번 주말·휴일에도 '집콕' 생활해야

광주의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틀러코스 터'를 탄 듯 요동치고 있다. 잠잠한 듯 하면, 바로 다음날 추가 감염이 쏟아진다. 특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거짓(동선) 진술이 잇따르면서 '광주 공동체'의 안전도 흔들리고 있다. 이들이 방역당국 통제도 무시하고 2주일 넘게 광주도심을 종횡무진 누빈 탓에 "어쩌면 이미 시민 사이에 조용한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우려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원이 다양한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무증상 확진자가 연일 추가되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통스럽겠지만,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19로부터 광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복구 양산동 거주 일가족 5명 중 1명이 검정고시까지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373번 확진자인 A

군은 지난달 22일 광주 모 고교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으며, 무증상이었던 A군은 시험장 발열 체크도 통과했다. 당국은 수험생 13명, 감독관 3명이 같은 교실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진단 검사와 함께 능동 감시에 들어갔다. 또 이들을 포함해 같은 층에 있었던 응시자, 감독관 전체 179명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A군 등 가족 5명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검사 자체도 거부하다 지난달 29~30일 가족 모두 확진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 3명은 지난달 15~30일 광산구 참단의 모 교회를 7차례 방문한 이력이 GPS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해당 교회 교인 수십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은 역학조사에선 가정예배만 봤다고 주장하며, 교회예배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

이들 가족은 또 PC방과 도매점 등 다중 이용시설도 여러 곳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활동범위도 워낙 넓어 방역당국마저 역학조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80여 병상규모를 갖춘 광주

동구 학동 모 병원에서도 환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5명이 열흘동안 순차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일단 이 병원 5층 다인실에 입원했던 285번 환자의 딸(289번·수도권 거주)을 첫 감염원으로 보고 환경 검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감염 경로가 서울 광화문 집회, 교회, 상무지구 유흥시설, 운동 클럽은 물론 병원, 수도권 확진자 등 다양하게 분포한 점에 주목하고, 감염원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2주일 넘게 검사를 피하거나, 동선을 숨기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178명 중 98명(55%)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인데다, 20명은 아직 최초 감염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광주시민 모두가 예의 없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해 주는 길 밖에 없다"면서 "후각·미각기능 저하나 발열, 인후통 등 조그마한 이상 증상만 있어도 가별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펀드·금융 5년간 170조 투입"

문 대통령, 뉴딜 전략회의
국민참여 펀드 20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이 원활한 자금 공급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계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계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

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 취임 후 첫 오찬이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국무총리로서가 아닌 당 대표 신분으로서는 청와대 첫 방문이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매주 월요일 주례회 동으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해 왔었다. 이 대표는 오찬에서 "재임기간 동안 오로지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며, 야당과 원칙 있는 협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강민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 센 태풍 '하이선'이 온다

7일 경남에 상륙 한반도 관통...광주·전남 피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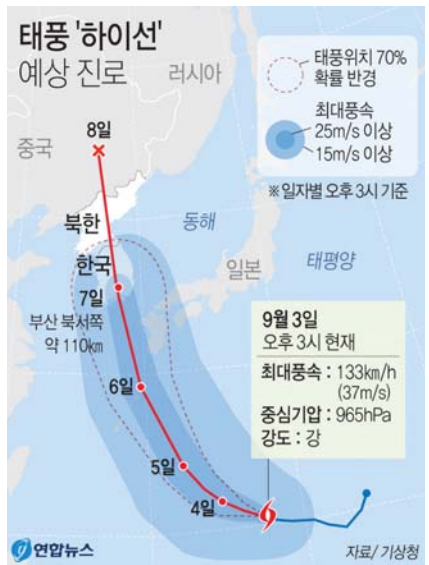
제 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북상하고 있다. 바비와 마이삭보다 강한 태풍으로, 7일 한반도에 상륙한 뒤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

후 3시 광 북서쪽 약 1100km 해상에서 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시속 22km 속도로 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65hPa, 최대 풍속은 시속 133km(초속 37m)로 태풍강도는 '강' 등급이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오는 6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을 지나 7일 오전께 경남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풍은 경남에 상륙한 뒤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하이선은 태풍 강도 면에서도 바비와 마이삭보다 강하고, 중심도 광주·전남에 가깝게 위치할 것



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최소화할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